

판매전문직제 도입, 여직원 동참 적극 유도

승진제도·호봉차이 등 단체협상 통해 매년 개정작업

80% 이상이 여직원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친절하고 환한 미소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원들에 의해 품위를 유지하며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끊임없는 친절과 미소가 판매사원들의 의무사항이지만 그들의 친절과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조건은 오랫동안 무시돼 왔다.

백화점 판매사원은 외형상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직업, 이른바 3D 업종으로 일컬어진다. 주 44시간의 근무는 다른 직장보다 바쁘지만 잠깐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보내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손님의 구매욕구를 부추기기 위해 설사없이 말을 해야 하는 점 등에서 다른 직업보다 어렵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백화점업계에는 여직원의 수가 압도적이다. 전 직원의 80% 이상이 여직원(그 중 80% 이상이 판매직)이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들이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사원 등 비정규사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백화점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백화점 수는 약 1백20여개이고 그들 백화점에 근무하는 여성의 수는 수십만에 이른다.

여성들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같은 조건의 남자사원들과의 차별이 비교적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조건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서울 백화점의 경우 고졸여성보다 같은 학력의 남성은 호봉차이는 있지만 같은 5급으

로 시작한다. 그러나 여성은 일정한 기간 후 4급(판매지도사원)으로 승진하고 나면 더 이상 승진기회가 없는 대신에 남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자격이 생기면 4급, 3급 등으로 상승할 수 있는 승진제도가 체계화돼 있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백화점업계의 실정은 백화점과 비슷했다.

그러나 87년 노동조합의 활성화 시기에 맞춰 각 백화점에 노조가 생기면서 여직원들에 대한 차별정책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동등한 근로조건을 위한 제도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제정된 해였다.

판매전문직제 도입한 신세계

신세계백화점은 내년 8월까지 불평등한 취업규칙을 개

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간 결혼 후 퇴직했던 기혼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재고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신세계백화점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판매전문직제'이다. 신세계백화점 홍보부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올 6월부터 시행 중인 판매전문직은 기존의 단순직종으로 분리돼 있는 판매직을 선진국식으로 세분화시키고 각 각의 직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계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판매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라는 프로의식을 키우고 거기에 맞는 직책을 준다는 것이 판매전문직의 요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세계의 판매사원들은 실력에 따라 세일즈 처프, 세일즈 마스터, 슈퍼 마스터 등의 단계를 거쳐 프로세일즈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들어 대형백화점을 중심으로 평등한 근로환경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녀공히 적용되지만 여성판매원의 수가 많은 만큼 여성을 우선적으로 키운다는 것이 신세계의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업계에서는 기혼여직원이 가장 많아 약 백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산전후 휴가나 임신부용 유니폼 등 기혼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은 잘 돼 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노동조합 홍종애(28) 씨는 "기혼여성들은 전혀 진급할 수 없다. 결혼전에 4급으로 진급한 여성의 경우는 결혼 후에도 변동이 없지만 결혼한 여성이 4급으로 진급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밝힌다. 롯데백화점 노조에서는 또 기혼여성을 위한 직장 탁아소 설치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남녀 호봉차 없애기도

미도파백화점 역시 승진이 나 호봉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핵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고졸 5급여직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간을 무려 10년을 잡아 놓고 있어 가뜩이나 이직률이 높은 판매사원들에게는 승진 기회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 미도파 홍보팀의 박명석 씨는 "제도상의 불평등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츰 고쳐 나갈 예정이다. 특히 판매직의 전문화에 여직원을 적극 동참시키려 한다"고 전한다.

그밖에 현대백화점은 올해

초 노조와의 단체협상 결과 남녀의 호봉간 격차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남자사원의 호봉간 차이가 7~8천원인 것에 비해 여자는 4~5천원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남자사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같은 판매직이라도 남자사원들은 잔업이나 힘겨운 물건 운반 같은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호봉차를 없앴다고 해서 남녀의 월급액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고졸여직원은 6급(초임 45만원)으로 고졸남자직원은 5급(초임 54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마다 행해지는 단체협상을 통해 계속 개정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백화점업계의 이러한 변화가 여성근로자의 동등한 근로조건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노력이 필요충분조건임은 말할 것도 없다. 백화점에서 3년째 근무한다는 한 남성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어떨 때는 여자라는 이유로 좀 더 많은 배려나 양해만을 요구하는 여성들도 만나게 된다. 그럴 때면 오히려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남성과 동등한 대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

(황금희 기자)

신용자 칼럼 ④

여성의 투표권이 세계를 바꾼다



국회도서관 정치법무 분석관

"세계는 지금 여성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데 현실감이 느껴진다.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얼마전에 신작 외신잡지에 실린 스웨덴의 사민당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유급육아 휴업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선거공약으로 여성유권자의 지지표를 얻어 집권당이 되었던 스웨덴의 사민당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여성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여지없이 등을 돌려 다시 야당의 자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기사는 사회개혁에서 여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구걸하거나 애원할 필요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투표권행사를 통하여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또한 몇년 전 독일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이 사민당에 입당한 일이 있었다. 입당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이 여자대학생들은 "여성을 위한 40% 쿼터제 실시를 약속한 사민당에 독일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결심했다"고 대답을 했다.

노르웨이는 이미 세번 연달아 여성이 수상이 되어 내각의 40%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여당을 포함한 3당의 당수가 모두 여성이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도 여성수상이 탄생되고 남녀차별을 포함한 계율이 엄하기로 유명한 회교국인 터키에도 여성을 수상으로 앉혔다.

며칠전 일본 정계는 40년 장기집권의 철옹성 자민당을 무너뜨리고 한지붕 8가족의 복잡한 신정권을 출범시키면서, 중의원(하원)의장에 도이 다카코 씨를 의장으로 받들어 남존여비사상이 특히 심한 일본의 전통에 이변을 발생시켰다.

현재 세계에는 3명의 대통령(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니카라과)과 4명의 수상(노르웨이, 캐나다, 터키, 도미니카), 3명의 의장(스웨덴, 서독, 일본) 자리에 여성이 앉아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성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논리는 이제 세계 어느곳에서도 통할 수 없는 낡은 논리가 돼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이런 일들이 단순한 남의 일 구경거리일 뿐인가?

아니다.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이다. 우리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힘을 발휘하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올수있다. 근로자중 3분의 1은 여성근로자다. 고용정책과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 소비경제의 주역은 다 여성인 주부다. 국가의 경제정책 중 국민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요인을 갖춘 여성들이 같은 목표를 향하여 바람직한 협조체제를 갖추 수 있다면 여성의 힘은 태산도 옮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어떤 것들인가.

첫째는 남녀고용평등 정책의 적극추진이다.

수많은 직장여성들이 직장의 출발점에서 퇴직까지 이르는 전단계에서 부당한 남녀차별대우를 받는 현실의 개혁을 위하여 1988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차별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어린이를 가진 취업여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 개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아이를 키워놓은 중년주부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취업창구,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명이 길어져 남자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여성들이 노후에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살

아야 할 처지가 점점 늘고 있어 적절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한해에 10여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대졸여성의 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그 일꾼으로 많은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는데 웬만한 요직은 남성들에 의하여 송두리째 독점되어 여성이 비집고 들어가 일할 기회가 없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들을 '여성정책'이란 이름으로 해결하겠다는 '선거공약'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여성들은 따지고 재촉하고 점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 보통여성들은 법이나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그리고 보통여성들이 이 문제들을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을 맡아서 잘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대표자로 뽑아 통째로 맡겨 놓았으니깐.

그러나 이런 때에 유권자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자 사이에서 평소에 여성을 대표하고 대변한다고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여성계지도자들은 진정으로 여성들과 한마음 한몸이 되어 약속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따지고 재촉하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계 · 시 · 판

@ 건전관광수필공모

한국관광공사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건전관광에 관한 수필을 공모한다. 모범이 될 만한 국내·외 여행경험과 관광을 통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민속, 전통문화 등의 예찬을 담은 내용의 작품을 오는 9월20일부터 25일 사이에 보내면 된다. 문의는 757-6030(교환) 464

@취미 및 부업교실

한국선명회 송파종합사회

복지관은 서예반, 고려수지침반, 생활미용반, 피부미용반 등의 취미 부업교실을 마련하고 오는 9월5일까지 수강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401-1919

@어머니 한글 산수 교실

여성신문교육문화원은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산수를 몰라 고등학교에 있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어머니 한글 교실을 마련, 수강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문의는 512-3301